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서 드리는 네 번째 “영상택배” 안내



지난 주 보내드린 전병구 박사의 일제강점기 - 일본이 추구한 인간상 -에 이어 이번 주도 영상택배를 올립니다. 이번 주에 회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전주대학교 HK교수로 재직중이며 우리 연구원 회원이신 김윤희 박사와 함께 하는 강좌입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믿어봅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대통령의 헌법 유린 - 1949. 6. 6 (반민특위 습격사건)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1956년부터 지정되어 추모되고 있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달이라는 점도 있지만 절기상 망종과 겹친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특히 고려 현종 5년(1014) 6월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망종 즈음에 전몰자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전통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현충일은 조국광복과 국토방위를 위해 몸을 던진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그런데 첫 현충일 7년 전 오늘, 우리 현대사 최악의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친일파 숙청 문제는 단순히 반역자를 처단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었고, 신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다.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새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과업의 첫 단추가 바로 친일 청산이었다. 제헌 국회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두었다.

제헌의회에서 <정부내 친일파 숙청에 대한 건>과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으며, 반민특위는 같은 해 10월 22일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각 도에서 지명된 국회의원 총 10명을 조사위원으로 삼았고 이들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에 지방사무국을 두었다. 또 반민족행위자의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구성되었다. 즉 반민특위는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기구로, 입법·사법·행정부가 함께 구성했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가진 기관이었다.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업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친일 세력과 이들은 배후에서 비호한 이승만 정부의 저항과 방해 공작이 전면적으로 펼쳐졌다.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귀국 직후 그는 '선(先) 정부수립 후(後) 친일파 숙청'을 주장했으며, 정부수립 후에는 국론분열이나 민심혼란을 이유로 다시 반대했다. 반면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반민법이 공포된 1948년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내무부 주관 하에 '반공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형식상은 반공대회였으나 실지로는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였다. 이날 대회에서 윤치영 내무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축사를 낭독한 후 "해방 이후 처음 보는 애국적 대회"라고 극구 칭찬했다. 반면 국회는 이날 반공대회가 국회를 적구(赤狗)로 모독하고 반민법을 반대하기 위한 대회라고 규정하며 이승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1949년 1월초부터 특위가 와해된 8월말까지 총 80여 회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중 11회에 걸쳐 반민법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가 엄연히 법적 기구임에도 조사활동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자료요청도 "침수" "분명치 않음"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반민특위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49년 1월 8일 친일기업인 박흥식을 시작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검거에 나섰다.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무력화 시도는 집요했다. 결국 1949년 5월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이던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의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고 남로당 프락치라고 발표했다.

6월 2일에는 친일세력의 사주를 받은 관제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반민특위 요원들을 비방하고 체포된 친일파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튿날에는 반민특위 습격을 시도했다. 6월 4일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등 친일경찰들을 반민법 제7조 해당자로 체포되었다. 6월 5일 서울 중부경찰서장 윤기병, 종로경찰서장 윤명윤 등이 반민특위 해산을 목표로 50여명의 무장 경관 동원해 다음날인 6월 6일 새벽 반민특위를 습격했다. 6월 8일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특경대 해산은 본인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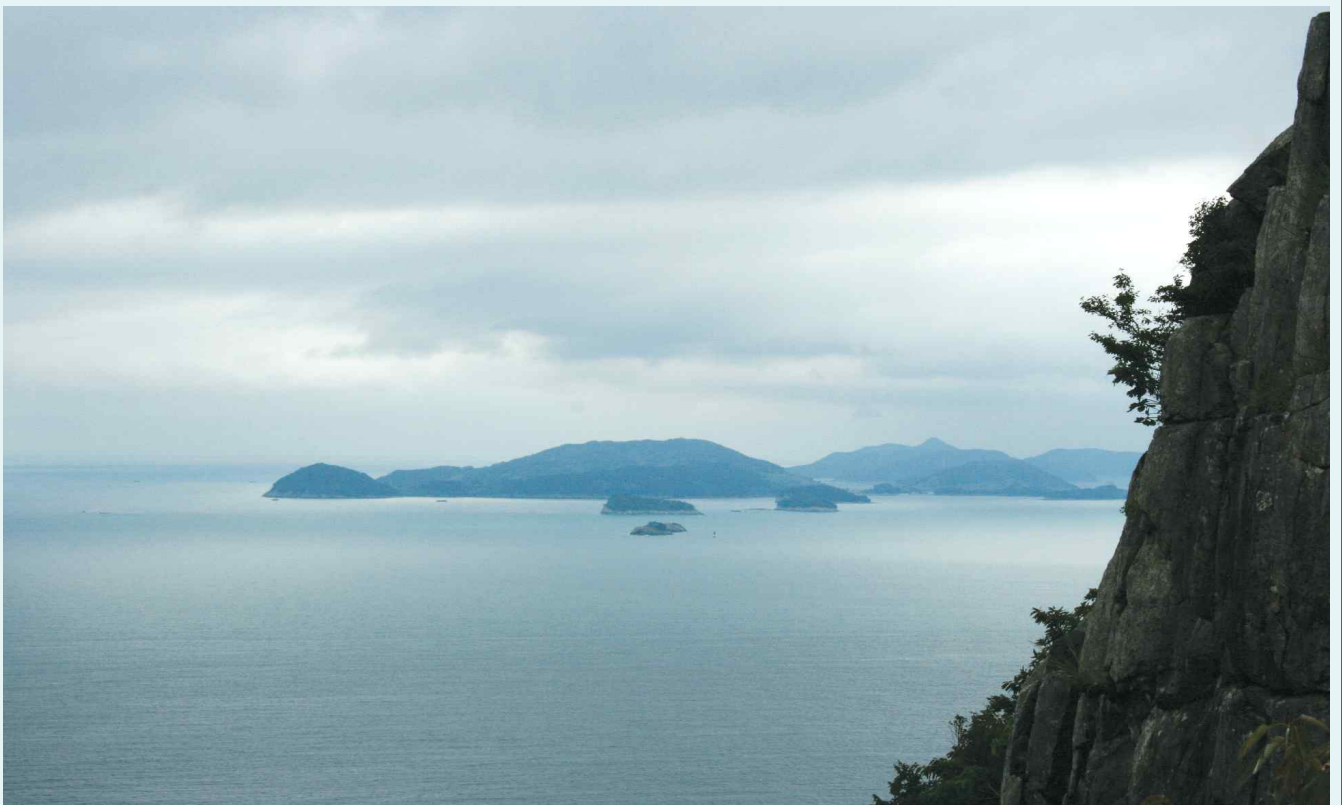
헌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행정부 수반의 지시로 경찰이 국가기관을 습격하는 유래 없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반민특위 활동이 부당한 권력과 그들의 하수인이었던 친일 경찰에 의해 무력화된 이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만일 반민특위가 제 역할을 수행했다면 구순 넘은 강제 종군 위안부 출신 인권운동가의 피맺힌 한은 진작 해소되지 않았을까...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다섯 번째 이야기 “금오산에서 보는 남해”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금오산에서 본 남해 | 멀리 바라보이는 섬들도 향일암을 닮았는지 저마다 느릿한 걸음으로 진리의 바다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거북이 형상이다.

향일암의 아침은 불덩이로 치솟는다. 따뜻한 기온에 게으름을 피우는 봄부터 가을까지의 해보다는 차가운 날씨를 딛고 뺨골 시린 수면위로 이글이글 떠오르는 겨울 해가 훨씬 아름답다. 저녁 해는 늘 소리 없는 눈물 속에 장엄하게 스러진다. 그리하여 태양이 바다 속으로 깊이 가라앉은 뒤에도 여운으로 남는 잔광과 적막이 남몰래 가슴을 후벼 파는 곳이기도 하다. 일출과 일몰을 구경하기에는 금오산 정상에 가장 좋다.

금오산은 해발 323m의 야트막한 산인데, 경사가 만만치 않아서 땀을 좀 흘려야 한다. 그렇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 경치가 보람을 느끼게 만든다. 곳곳에 난간과 계단이 설치되어 산행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정상으로 향하다가 잠시 잠시 뒤를 돌아보면, 다도해 해상공원에 펼쳐진 크고 작은 섬들이 수시로 멋진 장면을 연출한다. 잔잔한 수면을 가르며 떠가는 배들의 자취는 마치 한 폭의 풍경화요, 시다. 김광섭 시인의「비 개인 여름 아침」이 주는 이미지이다.

비가 개인 날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아침을 이루었으니 녹음綠陰이 종이가 되어 금봉어가 시를 쓴다

등산로의 중간 즈음에서는 전설의 경전바위를 가까이 볼 수 있다. 기왓장을 펼쳐 놓은 양, 경전을 펼쳐 놓은 양, 조물주의 재치가 넘치는 형상이다. 조물주는 이 바위들에게도 예의 거북이 등껍데기 문양을 빠뜨리지 않았다.



경전바위 | 하늘을 향해 제각각 깨달음의 페이지를 활짝 펼쳐보이는 중이니, 흐르는 구름조차 짐짓 머물다 간다.

하늘이 주는 침묵의 가르침을 페이지마다 새기고 있는가? 영겁의 세월 동안 펼쳐진 경전바위에 혹 남모를 가르침이 담겼을까 싶어 눈길이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저 적요만을 사랑하는 경전바위다. 경전바위 앞쪽에는 '흔들바위'가 섰다. 설악산의 흔들바위보다는 작은 크기다. 이곳의 흔들바위도 누가 밀든지 간에 일정한 진폭으로 흔들리다 멈춘다.



거북을 닮은 바위 | 오산을 오르자면 자주 눈에 뜨이는 풍경이다. 몸을 바짝 낮춘채 바다로만 내닫는 거북이들이다.

경전바위 위에서 조금 더 오르면 커다란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 하나가 나타난다. 새끼인지, 알인지 작은 바위 하나를 등에 졌다. 금방이라도 바다를 향해 돌진할 듯한 태세다. 진리의 바다에서 노니는 불멸의 영생체가 되기 위한 자세인가 싶다.

산성에서 하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냥 되짚어 내려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북으로 뺀 길로 내쳐 걸어가 빙 돌아내려오는 방법이다. 되짚어 내려오는 방법이 더욱 좋다고 여겨지는데, 그건 바다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산 도중에 바위 하나를 골라 앉으면 바다는 성큼 내게로 다가온다. 눈길은 거침없이 수평선 너머의 하늘까지 닿는다. 잠시나마 내가슴이 바다만큼 넓어지고 평안해진다. 바다가 내게 주는 선물이다.

내륙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쩌다 질푸른 바다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행복이다. 차라리 사치다. 그 즐거움을 향일암의 금오산이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물살이 시기하며 간지럼을 태운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일망무제의 바다가 아득하다. 이런 거대함 앞에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려나? 점점이 떠가는 배들이 외롭기만 하다.

다음 주는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여섯 번째 이야기 “남해의 물살을 가르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